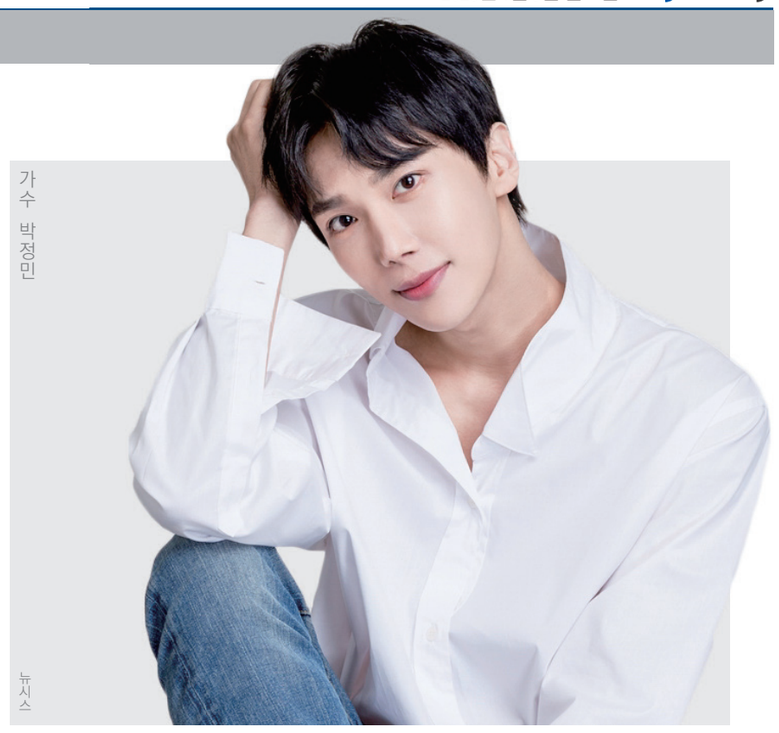
서울 서초구 서초동

‘SS501’ 박정민, 가수·뮤지컬·100억 건물주 종횡무진


가수 박정민 뉴시스

한때 ‘제2의 동방신기’로 불렸던 SS501은 김현중, 허영생, 김규종, 박정민, 김형준으로 구성된 5인조 남성 가수 그룹이다. 그룹명의 ‘SS’는 ‘Super Star’를, ‘501’은 ‘다섯 명이 영원히 하나’를 의미한다.

핑클, 젝스키스 등을 발굴한 DSP엔터테인먼트에서 오랜 만에 내놓은 신인 그룹으로 많은 기대와 관심을 모았다.

이들은 2005년 3월부터 Mnet 신인 발굴 프로그램 ‘M! Pick’에서 얼굴을 알렸다. 방송에서 열정적인 데뷔 준비 과정과 풋풋한 신인 시절 모습, 음악 성장기를 생생하게 보여줘 소녀팬의 마음을 건드렸다.

2005년 6월8일 데뷔곡 ‘경고’로 정식 데뷔했으며 같은 날 케이블 음악 전문채널 KMTV의 ‘쇼! 뮤직탱크’에 출연해 첫 데뷔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후 ‘스노우 프린스’ ‘내 머리가 나빠서’ ‘U R MAN’ 등 다양한 곡을 히트시켰다.

그중 대표곡 ‘스노우 프린스’는 최근 그룹 미래소년(MIRAE)에 의해 리메이크됐다. ‘스노우 프린스’는 매해 연말이면 재소환되는 명곡으로 특유의 밝고 경쾌한 멜로디가 겨울과 잘 어울리며 리스너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정빌딩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16-4

SS501 서브보컬 박정민은 단국대사범대부속고를 나와 경희사이버대 정보통신학과를 졸업했다. SS501 소속 전 DSP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 양측 모두 캐스팅됐지만 DSP미디어를 택했다.

13세 때 뚜렷한 이목구비와 잘생긴 외모로 길거리 캐스팅돼 잡지 모델 일을 시작했다. 중3 때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기 위해 피임도구인 콘돔 광고 모델로 활동도 했다.

박정민은 2011년 케이블채널 Mnet ‘비틀즈 코드’에 출연해 특이한 이력과 관련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당시 MC 윤종신이 “지금 보면 혹시 조금 부끄럽다는 생각은 하지 않느냐?”라고 묻자 그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바른 성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였다. 만족한다”라고 말했다.

SS501 멤버 중 처음으로 개인 활동에 나섰다. 2011년 한국, 대만, 일본에서 첫 번째 솔로 앨범 ‘Not Alone(낫 얼론)’을 발매해 첫 주 대만 음원차트 ‘FIVE MUSIC(5大金榜)’과 ‘보커라이(博客來)’에서 1위를 기록하며 해외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앨범 타이틀곡 ‘Not Alone’을 비롯 ‘넌 알고 있니’ ‘내 하루는 매일 매일 크리스마스’ 등 모든 곡을 직접 작사해 이목을 끌었다.

‘Not Alone’은 유명 프로듀서 신사동 호랭이가 작곡을 맡았다.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 라인을 메인으로 리얼 악기와 신스의 조합이 인상적인 댄스곡으로 유연하고 섬세한 박정민의 보이스 톤과 오케스트라의 멜로디가 힘찬 타악기가 만나 새로운 느낌의 댄스곡을 만들었다는 평을 받았다.

이후 뮤지컬 배우로 영역을 넓혀 2008년 뮤지컬 ‘그리스’에 출연했으며 2010년 골드티켓 뮤지컬 기대주상을 받았다.

2012년에는 대만 드라마 ‘번당화원’에서 재벌 상위 1%로 모든 것을 가진 호텔 후계자 박희환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으며 2019년 한국-베트남 합작영화 ‘오빠가 화났다’에 출연하는 등 아시아권에서 배우로 활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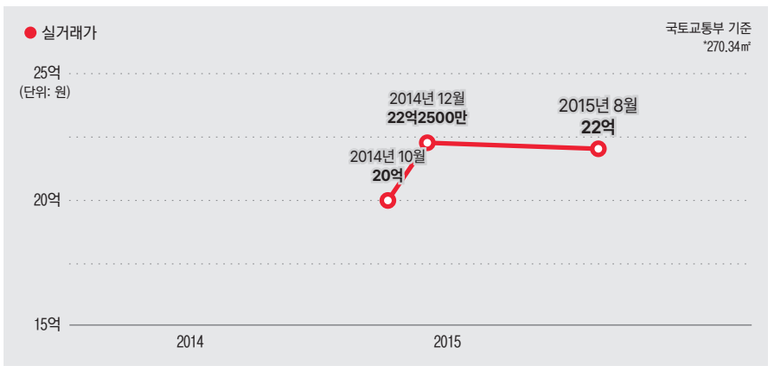
한편 박정민이 100억 원 상당의 빌딩을 보유한 건물주로 알려졌다. 빌딩 규모(토지면적 233.40㎡, 연면적 628.86㎡)는 지하 1층~지상 4층으로 서초역과 방배역 사이에 있다. 지하 1층에는 카페, 지상 1~3층은 점포와 사무실, 지상 4층은 주택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7년 10월 대출을 끼고 35억 원에 매입했으며 현재 가격은 주변 시세를 고려해 100억 원정도로 알려졌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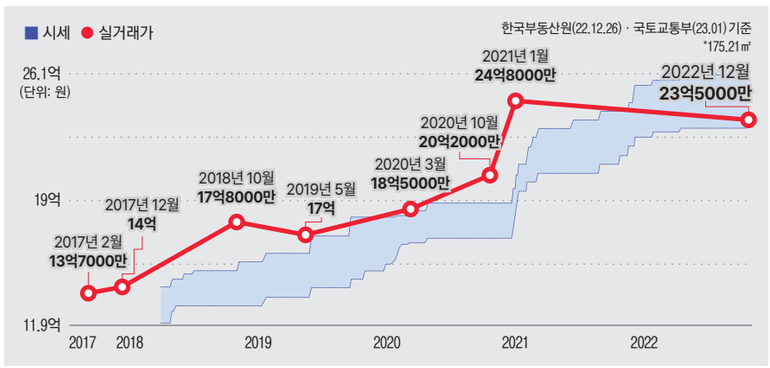
더샵오데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8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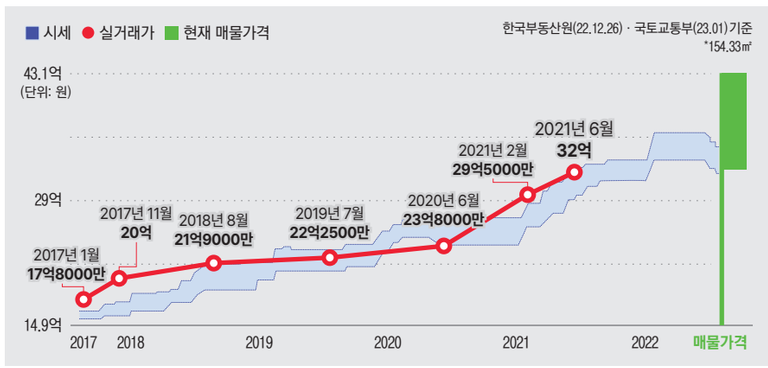
아크로비스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3



서초삼풍아파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



윤여을 현)한앤컴퍼니 회장



윤여을 한앤컴퍼니 회장은 미국 조지아대 재무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다. 20년 동안 소니코리아를 이끌어 ‘소니맨’으로 불리며 1989년 소니음악엔터테인먼트코리아 사장, 2001년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등을 지냈다. 2004년부터는 소니코리아 사장으로 사업 전체를 총괄하다 2010년 퇴직했다. 이후 한앤컴퍼니로 자리를 옮겨 경영전반을 책임지는 회장직을 맡고 있다. 한앤컴퍼니는 한상원 모건스탠리PE의 아시아 최고투자책임자가 2010년에 설립한 사모투자 전문회사다. 한 대표는 한앤컴퍼니와 인수한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윤여을 회장을 영입했다. 한 대표는 투자를, 윤 회장은 경영전반을 맡고 있다. 두 사람은 하버드 경영대학원 석사 선후배 사이로 1993년 처음 만났으며 이후 사업상 파트너가 되기까지 끈끈한 사이를 유지했다.



백상홍 현)윌스기념병원 내과센터 원장



백상홍 윌스기념병원 내과센터 원장은 가톨릭 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내과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성모병원에서 20년 이상 순환기내과 교수로 근무했으며 서울성모병원 심장중환자실장, IRB사무국장, 가톨릭중앙의료원 연구윤리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회장,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회장, 대한심혈관약물치료학회 회장, 유럽심장학회지 편집위원 등을 지냈다. 2013년부터 가톨릭대 의과대학 명예교수이자 국제심혈관약물치료학회부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2023년도 차기회장으로 내정돼 있다. 지난해 3월 윌스기념병원에 영입된 백 원장은 “전 세계 사망원인 1위, 국내 사망원인 2위가 바로 심혈관질환”이라며 “고령 환자가 많은 척추관절 종합병원에서 내과 통합 진료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임상경험으로 환자가 만족하는 진료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홍완선 전)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본부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한국투자금융을 거쳐 하나은행 신탁자금팀장, 하나알리안츠투자신탁운용 마케팅담당 상무이사, 하나은행 법인영업본부 부행장보, 하나대투증권 부사장, 하나은행 자금시장그룹 총괄 부행장, 인하대 초빙교수, 한양대 경제금융대 특훈교수 등을 지냈다. 1991년 하나은행 설립 때부터 2012년 3월 퇴임 때까지 하나은행에서 근무한 정통 ‘하나맨’으로 외환과 증권운용, 파생상품 등을 두루 섭렵하며 뛰어난 실적을 냈다. 2013년 11월에서 2015년 11월까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본부장, 기금이사를 지냈다. 과거 통과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건에서 국민연금에 불리한 합병비율로 인한 합병 찬성 결정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의혹으로 특검에서 집중 조사받았고 결국 지난해 4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국토부, 공익사업 협의 권한 지방 이양… 경남 관광산업 박차

경상남도

경상남도는 3일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공익사업 협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키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해안 관광개발 등 지역의 다양한 개발사업 분야에 활발한 투자유치가 기대된다.

‘공익사업 협의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를 위한 사전절차로 중토위에서 동의한 사업에 한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허가를 할 수 있으며 향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는 토지수용의 관할을 정하고 있다.

국가나 시도 시행사업의 경우 중앙, 그 외의 경우 지방에서 토지수용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절차인 ‘공익사업 협의제도’는 중앙에만 권한이 있어 공익사업 협의가 중앙에서만 이루어졌다. 이에 지역의 특색있는 사업이 부동의 되는 등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많았다.

특히 강원도 모 사업의 경우 99% 보상이 완료되고, 잔여 토지 1필지 남은 공익사업 협의도 부동의 된 사례도 있었다.

한편 이번 중앙사무 지방이양 배경에는 도가 그동안 시도지사 협의회 제안,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건의, 수십 차례의 중앙부처 방문건의 등 주도적으로 중토위 협의 제도 개선 건의가 있었다.

특히 지난해 12월19일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에서 박완수 경남지사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강력하게 중토위 협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장영욱 도 관광개발과장은 “수도권의 첨단산업이 반도체 공장이라면, 지방 특히 경남의 첨단산업은 관광사업이다”며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해만권 통합관광 벨트구축계획. 경상남도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김천1일반산단 4단계 조성 청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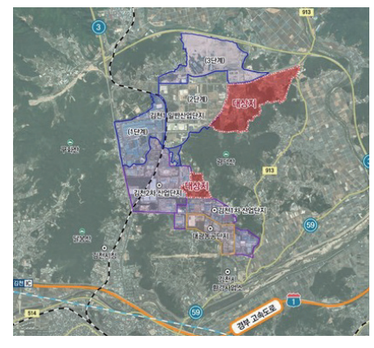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1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천시는 김천1산단 4단계 조성사업이 2023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조정회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통과해 2일 최종 반영·고시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 조사와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까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고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와 탁월한 입지조건으로 이번 4단계 또한 조성이 완료되면 기업체들 간의 입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1~3단계 산업단지는 조기 분양 완료됐다.

4단계 산업단지는 어모면 다남리, 개령면 신룡리, 대광동 일원에 124만㎡(38만평) 규모로 총사업비 2349억 원을 투입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10개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며 2027년 준공한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4단계조성사업 위치도. 김천시

김충섭 시장은 “국토교통부 2023년 신규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은 1~3단계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경상북도 및 관련 부처를 수시 방문한 노력의 결실이다”며 “이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승인 받아 토지보상 및 조기 착공으로 happy together 김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